

KIAT 해외정책동향

KIAT 산업기술정책단 기술동향조사실('24.08.19.)

영국의 항공우주 섹터 딜 (Aerospace Sector Deal)

❖ 우리나라의 초격차 정책과 비견할 수 있는 영국의 섹터 딜의 배경과 상세 추진 사항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

섹터 딜의1)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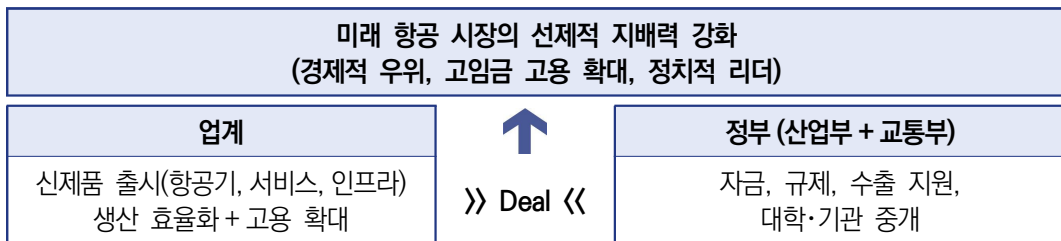
❖ (대상) 정부와 항공우주 업계

❖ (기간) '18.12월 ~ '26.

※ 영국은 '13년부터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R&D를 지원해 왔으나, '18년 테레사 메이 총리(Theresa Mary May)의 제안으로 섹터 딜로 발전

❖ (목표) 미래형 항공 모빌리티(전기 추진, 소형 비행 제품 및 인프라, 서비스) 시장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

〈그림〉 항공우주산업을 위한 기업-정부 간 교환 사항



※ 출처 : gov.uk/publications/aerospace-sector-deal/에서 재구성

❖ (규모) 약 ￦78억(13.26조원)+ α 로 추정('13~'26, 연간 ￦6억+ α ; 약 1조원)

- 정부 ￦38억('13~'26; 연간 ￦3억; 6.5조원) + 민간 ￦38억+ α ('13~'26; 추정값)*

* 민간은 정부 지원금의 50% 이상을 매칭하는 것으로 추정

미래 항공 챌린지(R&D) 사례: 정부 ￦1.25억, 민간 ￦1.75을 매칭(매칭률: 140%)

※ 영국 R&D 예산 추이: '22년 기준 ￦118억(약 20조원; '27년까지 GDP 2.4%로 상향)

1) 섹터 딜(Sector Deal)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, “산업 협약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해석(섹터 = 산업 부문 즉 산업; 딜 = 명문화되지 않은 협약)

- ❖ (수단) 기술개발, 규제개선, 산학협력, 보안, 인턴십, 인종 다양성, 여성 고용, 연구 인프라, 수출 정보·자금·보험 제공, 투자유치(Local 협조 : LEP)

〈표〉 항공우주 산업 섹터 딜의 교환 내용

민간 주도	민간 주도-정부 지원	정부 주도
인턴십, 여성인력, 대·중소기업 협력	기술개발, 산학협력 연구인프라	규제개선, 보안, 수출 지원, 투자유치, 산업·교육 표준화

※ 출처 : gov.uk/publications/aerospace-sector-deal/ 중 기업-정부 역할에서 재구성

1. 추진배경

- ❖ (시장진단) 영국은 향후 20년 동안 3.8만대(대형 여객기)* 수요를 전망하고, 탄소 규제와 재정 부담으로 시장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

* 규모 : £4.65조(약 7,900조원)

- **탄소 규제** : 국제·유럽 항공기구의 탄소 규제* 내연기관 항공기의 시장은 축소되고, 전력 추진 항공기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(영국 ATI)

* 연간 2%의 연료 효율(‘21~’50, 국제민간항공기구), 탄소 배출량 75%·소음 65% 감소 목표 제시(~’25, 유럽 항공 연구 및 혁신자문위원회(ACARE))

- **재정 부담** : 항공 여객 증가 수요(4~5%, CAGR)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항의 신·증설 불가피 → 대규모 재정수요 및 사회 생태적 문제* 야기

* 소음·온실가스 증가 불가피, 활주로 부지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회·경제적 갈등

☞ 항공 수요에 대한 유연한 접근, 저비용·고효율, 친환경성 제고 필요

- ❖ (업종진단) 전체 제조업 생산의 5%(£120억), 20.7만 명을 고용 중이며, 전 세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는 대표적인 산업(‘21년 기준)²⁾

- **파급효과** : 항공우주산업은 산업·경제에* 미치는 영향분 아니라, 국방**, 사회적 측면에서*** 영향력이 높은 산업

* 455억불(세계 2위, 시장점유율 17%), 영국 내 생산의 90%를 수출, 전 업종 평균임금 대비 40% 높은 임금 수준

** 영국의 중요 산업인 방위산업과(군수, 통합지휘시스템) 직결

*** 중소기업 대부분이 낙후 지역인 북부에 위치하여 지역 간 격차 완화에 큰 기여

- **주력 품목** : 엔진, 헬리콥터, 날개, 구조 및 항공기 시스템의 설계 및 생산, MRO 서비스(부품의 생산, 유통·정비 서비스)

2) KOTRA 런던무역관(2021.09). '21년 영국 항공우주 방위산업정보

- 영국은 엔진, 날개 및 첨단 시스템의 설계와 제조, 그리고 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(영국 총리, '20.7월)
 - ※ 영국은 “하이브리드 전기·전력, 항공 구조물 및 시스템 통합 등을 통해 드론, 도시 이동 차량 개발을 선도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
- (대표기업) 롤스로이스(엔진), 에어버스(날개), BAE 등

2. 목표·전략

- ❖ **(목표)** 다양한 여객 수요에*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, 전기 추진 항공기를 통한 항공 제조 시장을 선점
 - * 수송 구간(City, 로컬, 내셔널, 영국-EU) ⊕ 품목(소비재, 출퇴근, 여행, 바이오·반도체 등 첨단 소재)
- ❖ **(전략)** 차세대 제품 및 서비스 개발, 생산 인프라 혁신을 통한 저효율 극복, 고용 확대를 골간으로 하는 패키지 지원
 - **신제품·서비스 개발**: 정부·산업계의 미래 항공 챌린지 공동 투자, 정부의 산업전략챌린지기금 지원(₩1.25만)
 - * 미래 항공기(드론, 전기 추진 항공기 등), 영공 관리 모델, 지상 지원 인프라 개발 지원
 - **중소기업 혁신**: 중소기업의 R&D 지원 확대
 - **공급망 강화**: 항공우주산업의 공급망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생산성 강화 지원
 - **여성 참여 확대**: 여성 현장 제정으로 동 산업의 다양성·포용성 증진
 - **인재 확보**: 산·학간 공동 작업으로 업계가 필요로 하고, 실력 있는 인재를 육성·발굴
- ❖ **(기대효과)** 미래 항공시장의 선점, 지속가능한 성장(친환경 성장), AI·데이터 기술 혁신, 지역 간 균형발전
 - **미래 항공시장**: 여객·물류의 이동 방법(대규모 공항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형태) 혁신(제품, 서비스, 관리 시스템, 새로운 시장에 맞는 규제)을 통한 시장 선점
 - **친환경 성장**: 하이브리드·전기 추진 기술로 저탄소 산업구조에 필요한 기반 기술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에 해당 기술을 공급
 - **AI·데이터**: 복잡한 영공 관리 시스템을 혁신, 고성능 장비를 활용한 모든 비행물체 데이터 수집, 머신러닝·분석과 접목한 영공 관리 혁신

❖ (추진체계) {산업부* + 교통부 - 항공우주성장 파트너십(AGP), 항공우주기술연구소(ATI) - 연구기관(대학·연구소)} + {기업, 민간연구소}

*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, 동 사무는 산업부에서 과기부로 이관

진행 경과

- 2018. 12. 항공우주산업 섹터 딜 개시
- 2019. 초. 새로운 공급망 경쟁력 프로그램 개시
국가항공우주기술개발계획 개시
- 2019. 4. 미래 항공 그랜드 챌린지 개시
- 2020. 1. 항공우주산업 섹터 딜 연차 점검(연계 검토)
- 2020. 시범 비행(E-FanX 하이브리드 전력 추진 비행체)
* 에어버스, 롤스로이스 & 지멘스

3. 프로그램 구성

분야	목표	지원 사항	관련 사업·담당 기관
제품 개발	차세대 항공기 및 인프라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심 항공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개발 (드론, 20석 미만 소형 항공기) • 하이브리드 추진체, 전력 공급, 전자 장비, 항공 구조물·영공 관리 시스템 개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 모빌리티 그랜드 챌린지 ※ 자동차 전동화 기술과 연계·추진
	전동화·자율비행체 및 시스템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차세대 항공기* 및 미래 영공 관리 시스템 출시(25년까지) * 저탄소, 저소음, 저비용 항공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기 추진 항공기 설계·개발 - 자율 비행 항공기 설계·개발 - 전기 추진 항공기 인프라·시스템 지원 - 자율 비행 영공 관리 모델 개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 항공 그랜드 챌린지
연구 지원	산-학 파트너십 강화 고품질 연구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예 대학·연구기관을 통한 기업 연구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공기 설계, 항공 구조물, 하이브리드·순수 전기 추진체, 전자 장비 등 첨단 시스템, 날개 등 연구지원 - 설계·테스트 인프라 지원 ※ 향후, 자율 비행, 인공지능, 로봇공학, 제조공정의 DX 지원 병행 예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항공우주연구컨소시엄 (전담:항공우주성장파트너십)

분야	목표	지원 사항	관련 사업·담당 기관
인재 육성	신기술 인력교육 고용기회 확대 고령화 개선 여성 진출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동화, 자율 비행 기술 실습 제도·교본 보급 청년층의 인턴 실습 기회 확대 맞춤형 인력 제공 프로그램 개발 여성인력 확충 및 승진 등 동일한 기회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부 직업학교
인 프 라	제조·연구시설 확충, 공정혁신, 사이버 보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조공법 개발 및 기업 접촉 고가의 제조·연구 장비 활용 지원 첨단 장비 작동 기술력 습득 생산공정의 디지털화 촉진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부가 제조 캐파필드 산업전략챌린지(₩1.2억) 정부지원
공 급 망	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R&D지원 : ₩39억(약 3천개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항공우주기술개발 : ₩44백만 - R&D공모지원 : ₩40백만 - 성장분담 : ₩2.5억 항공우주 공급망 현장 이행 지원 수출 금융 상품 접근성 제고 	
	중소기업 경영혁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영 효율성 개선을 위한 진단·자문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급망 21 사업, 항공우주협회·북아일랜드 투자청
	고객 관점에서 조직역량 강화, 생산성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(6~36개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직구조, 제조공정, 경영전략, 리더십, 재무 관리 등 진단·자문 - 원청기업 등 고객사 맞춤형 지원 - ₩1천만 지원(사례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새로운 공급망 프로그램 사업 (정부 주도형 지원)
	선도기업 경영혁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청·탑 티어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배구조, 리더십, 제조공정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장 공유 사업(업계 주도형 지원 : 63개 기업 참여, ₩29억 신규 매출 달성)
	수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출 챔피언 이니셔티브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 : 수출 초기 기업 - 수출 노하우, 아이디어 공유 - 수출 성사를 위한 기업 간 연결 수출 기법 개발·연구, 학습 공동체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출 챔피언 이니셔티브 사업 국립 무역 아카데미

분야	목표	지원 사항	관련 사업·담당 기관
로컬	지역 간 성장 격차 완화 · 국가와 지역 성장의 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 성장전략의 지역별 확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섹터 딜 프로그램 전달·지역별 계획 수립(국가계획의 하위 시책) - 인턴십·재직자 교육 등 지원 - 제조·설비투자 지원 - 지역 허브 설립·지원 - 기업 유치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권역별 항공우주협회 중심 • 광역분권정부투자청

4. 정부-업계 간 분야별 역할 분담

구분	기업	정부
R&D #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 지원금에 대한 매칭 ※ 상용화 프로젝트 제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항공우주 상용화R&D 지원 : £19.5억(한화 33.2조원, '13~'26/연 2.6조원) ※ 파괴적 혁신, 공급망 효율성 중심으로 선정
R&D #.2 (전동화, 자율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 지원금에 대한 매칭 (£1.75억(2,975억원)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전략챌린지기금 지원(R&D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부사업 : 미래 비행 프로그램 - 규모 : £1.25억(2,125억원) ※ 드론, 전기 항공기, 영공 관리 모델, 항공 지원 인프라 구축 방법, 신규 시장 개척
대기업 역할 (국가 항공우주 기술 활용 프로그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간 자금 확보(£0.1억, 170억원) • 민간 일자리 발굴 • Prime, Top-Tier : 기술 공동 자금으로 중소기업 협력 확대(중소기업 진흥: 대·중·소 상생 촉진) • 공기업의 기술 활용 프로그램 적극 참여 	-
중소기업 지원 (R&D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항공우주기술연구소의 R&D 지원 (£1,370만(224억원))
민간 혁신 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·학·연 협의회 구축 •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-대학 간 R&D 촉진 지원

구분	기업	정부
보안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이버 보안 지원 데이터·디지털 연결 활동 지원
다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내 인종 다양성 균형 유지 사내 유리 천장 허파 노력(임원 신설) 성 다양성을 경영 목표에 포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종·성 다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
고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·연구소 간 협력체계 구축 인턴십 확대(=고용기회 확대) 인턴십 횟수 증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턴십 비용 지원 인턴십 운영 모니터링 인턴십 등 취업 알선 구직자를 위한 기업 정보 제공
기업경쟁력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R&D투자 활동 강화 기업 생산성 향상 투자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·생산 기반·연구 장비 지원 ※ 산업전략챌린지자금 프로그램 활용
공급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 지원금 매칭 (최대 1천만, 한화 170억원) '항공우주 성장 파트너십'의 중소기업 활동 촉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공급망 경쟁프로그램 기획·지원(예정)
수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의 국제무역, 에너지·산업 담당 부서와 협업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및 수출 위험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에게 정보 제공 - 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
로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항공우주산업 육성 전략 마련·제공 (기업 → 지자체) : 기업 중심의 산업육성 체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 투자(유치)에 관한 권한을 지방(지자체, LEP)으로 위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전략 개발 및 합의권
전담 부처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항공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전담 부서를 지정(또는 설치)하고, 권한을 위임

5. 영국 국가산업전략과 연계

- ✦ 항공우주 섹터 딜 프로그램은 영국이 기술혁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「산업전략」의 5대 개혁 과제의 맥락 속에서 구체화

〈표〉 영국의 산업전략백서 5대 개혁 과제와 항공우주 섹터 딜 지원 사항

구분	산업전략백서	항공우주 섹터 딜
공공 R&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GDP 대비 R&D비중 확대 : '27년까지 2.4%), £95억 → £125억('21~'22) - 혁신기업 비중 50% 이상 - 아이디어의 사업화 촉진 - 클러스터 구축 - 인재 유치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£39억 투자(13년간)
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성적인 공학 인력 부족 타개 및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 비중을 확대 - 고등교육시스템 개혁 - 수학·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·학간 인턴십 강화 • 산업계 주도의 기술 매핑 훈련 개발 • 여성인력의 진출 강화(여성 현장 마련)
인프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국에 현대화된 산업 인프라 제공(£370억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 항공 챌린지 사업 지원 - 제품개발, 미래항공 인프라·서비스 개발
사업 환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소기업 혁신 성장의 우수 BP 창출 - 고성장 혁신기업에 10년간 투자(£200억) - 비즈니스 기초 프로그램 추진(신규 사업) - 지역 성장 허브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급망21 경쟁력·성장프로그램 지원 - £1,000만 지원(기업 매칭) -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간소화 지원 - 기업 맞춤형 교육 제공
로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 성장과 지역 성장을 연결하고, 지역산업전략을 통해 지역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³⁾ ※ 지역별 과제, 생산성, 수익성, 경쟁력 전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항공우주 섹터 딜에 LEP와 지방 정부 참여 - 섹터 딜에 맞는 지역산업개발전략 마련 - 투자 프로그램 설계 및 지원 - 정부 권한 지방 위임

3) 지역 자산을 국가 성장의 기초 자산으로 편입

6. 시사점

가. 섹터 딜의 역사적 맥락

❖ 섹터 딜은 국가차원의 전략적 성장을 위하여 정부와 업계가 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산·관 협동 정책으로, 이른바 ‘조합주의’적* 전략의 한 형태

* 조합주의(corporatism): 국가가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의 연대 또는 배제를 통해 국가의 목적을 실현해 가는 것으로, 그 연원은 중세 길드 체제까지 거슬러 가며, 20세기 중반까지 유럽과 남미의 성장을 끌어냄

- 국가와 집단이* 고유의 자원을 맞교환하여 각자의 전략적 목표뿐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성장전략으로 오랫동안 유럽에서 통용된 방식

* 경영인 연합, 노동조합, 업종별·기능별 단체, 시민단체 등

- 국가 주도형 성장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, 시장·시민사회의 참여·협조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호 이익의 맞교환에 따른 공동 협력체계 형성

※ 스웨덴: 발덴베리 가문의 부의 세습과 완전고용의 맞교환

- 참여 집단 간의 상호 이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권위주의형 vs. 상호협력형, 힘의 역학 관계에 따라 국가 주도형 vs. 시장 주도형으로 구분

나. 섹터 딜의 평가

❖ 영국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섹터 딜과 같은 정책 유형이 실효성이 있는 결과를 낳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

- 항공우주 섹터 딜의 경제적 성과(제품, 인프라, 서비스의 상용화)가 아직은 가시권에 놓이지 않아 시장의 성공을 논하는데 한계

- 브렉시트와 팬데믹이 겹치면서 고물가, 고에너지, 투자·고용 위축, 경기냉각 등으로 인해 산업적 성과가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

- '20년 이후, 경제적·사회적 이슈 돌파를 위한 정치적 조급함으로 인해 정책 실패도 일으키는 등 ‘정책효과’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

그럼에도 불구하고, 우리나라와 영국 간의 ‘초격차’라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, 영국은 어떤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가는 것은 필요

다. 시사점

- ❖ **(협약을 통한 방식)** 영국 섹터 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와 업계가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
 - 협약을 통한 추진 방식은 협약이라는 구조상, 공동의 목표, 투자 기간, 방향성의 명확한 제시가 가능할 뿐 아니라,
 - 하위 프로그램의 구성과 역할 분담, 장기적인 투자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
 - 짜임새 있는 투자전략이 반드시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지만, 정부와 업계 모두에게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
- ❖ **(기업 중심의 문제 접근)** 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기초하여 사업을 기획하고, 업계의 성장 방향을 미래 시장의 선점으로 타깃
 - 섹터 딜은 글로벌 경쟁우위에 있는 업종에 확고한 리더십을 심어주고 브렉시트 이후 고소득 산업의 비중 확대를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에서 시작
 - 문제의식을 유럽의 항공 탄소 규제에 따른 미래 시장 선점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, 중견기업의 CAPEX 지출 정체와 프라이머기업과 영국 내 중소기업 간의 협력 부진이라는 업계의 구조적 문제 개선에서 시작
- ❖ **(기업 중심의 추진)** 정부가 제안했지만, 시장의 성장과 기업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
 - **역 매칭** : 정부가 산업을 특정하여 협약을 제안하고 재정도 지원하지만,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업계가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, 업계의 투자 규모에 정부가 매칭하는 모양새 (민간 투자 규모 > 정부 재정 규모)
 - **R&D** : 공공부문의 R&D 지원체계도 상용화R&D에 맞춰 연구를 지원하고, 항공우주 분야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학·연구소를 선별하여 기업의 필요 기술을 밀착 지원(비유 : “산·학간 수직계열화 체계”)
 - *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, 기술 애로 해결, 실증·개발, 장비 서비스 지원 등
 - **경영진단** : 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하여, 경영·공정진단을 통해 재무·생산 부문의 혁신을 유도 하는 한편, 고객사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진단하고, 고객사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
- ❖ **(예산제도)** 영국 예산제도의 특징을 정책에 결합(대규모 예산의 장기투자)
 - 섹터 딜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가능했던 점은 영국의 예산제도가 단년 예산이 아닌 2~3년 주기 예산체제로 이뤄졌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

- 기금 수입이 전체 재정수입의 2위를 차지할 만큼 높아 재정 투자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(조세연구원. 2010)
- 특히 동 정책은 산업전략기금으로 편성·지원하기 때문에 재정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를 이룰 수 있는 기틀로 작용

〈참고 문헌〉

- KOTRA 런던무역관. 2023. 영국 인공지능 산업과 미래
- www.gov.uk/government/publications/aerospace-sector-deal/aerospace-sector-deal
- 영국투자 안내서(한글판) Britain & Northern Ireland(<https://eu.eventscloud.com/>)
- 중소기업연구원 <https://www.kosi.re.kr/front/templatePublicationContents?dataSequence=J180131K01>
- 한국조세연구원. 2010. 영국의 재정제도. 정책분석 10-02

※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단 기술동향조사실 강정훈 책임연구원 / xyz@kiat.or.kr
 ※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